

우리 나라 피임의 역사는 1961년 4월1일 대한가족계획협회(현 대한가족 보건복지협회)의 발족으로 시작되었다. 1962년 정부가 가족계획을 경제개발계획의 중요 일환으로 채택하면서 협회는 정부의 지도와 협조하에 가족 계획에 대한 계몽교육, 요원의 훈련, 피임기구 및 약재 보급, 조사 연구 등에 힘써 왔고 이로써 가족계획에 성공한 나라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우리 나라에서의 피임은 서구 생활양식의 영향으로 성문화가 크게 변하면서 문제를 갖는다. 이는 높은 인공임신중절률로 나타나는데 잠정적 집계는 매년 태어나는 신생아의 2배 이상에서 인공임신중절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 보고에 따르면 15-44세 유배우부인의 인공임신중절경험률은 80-90년대 초에는 52-54% 이었으나 2000년에는 39%이었다. 원인은 원치 않는 임신이 35.9%로 가장 많았고 터울조절을 위해서가 20.5%, 임신부의 건강 9.5%, 혼전 임신이 9.5%이었다.



이 임 순  
순천향대학교병원 산부인과 주임교수  
피임연구회 회장

## 피임- 바로 알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

### 원치않는 임신이 인공임신중절로

원치 않는 임신인 경우가 35.9%로 가장 많은데 이는 효과적인 피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이다. 우리 나라의 15-44세의 기혼여성 중 22.1%가 한 번 이상의 인공인신중절을 경험하고, 2회 이상 반복 경험한 기혼여성도 17.1%나 된다. 인공임신중절은 여성의 신체와 정신에 많은 위험과 부작용을 일으킨다.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1/3이 죄책감, 우울증 등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 후유증인 비정상적 출혈, 골반염, 자궁내 유착, 불임증 등을 경험하므로 여성 건

강에 큰 해를 끼치는 인공임신중절은 피해야 한다.

우리 나라 여성 피임 실천율은 1962년 이후 지속적인 가족계획사업의 영향으로, 1976년 44.2%에서 1991년 79.4%, 1997년 80.5%, 2000년 79.3%로 높은 수준의 피임 실천율을 보이고 있다.

### 피임 교육이 필요하다

피임 실천율이 높고 다양한 피임방법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외국에 비해 원치 않는 임신과 인공임신중절률이 높다. 이는 여성들이 선택한 피임 방법의 효과가 떨어지거나 피임에 대한 부적절한 교육 때문으로 최근의 무방비로 성에 노출된 청소년들에게 피임교육은 더욱 중요하다.

본 저자가 순천향대학병원 산부인과 외래를 방문한 가임기 여성 1,13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2002년 대한산부인과학회지에 보고 논문에 따르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피임방법은 콘돔(29.0%)으로 나타났다. 자궁내장치(21.1%), 난관수술(13.5%), 먹는 피임약(12.2%), 월경주기법(9.3%), 정관수술(7.9%), 질외사정법(6.4%), 기타(1.2%) 순이었다. 이 결과 과거 높은 수치였던 난관수술 등 영구적 피임법은 줄고 일시적 피임법의 선호가 뚜렷하다. 이는 피임법도 시대에 따라 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피임법은 정관수술과 난관수술 같은 영구피임법과 원할 때 피임하고 원치않을 때 하지 않는 일시적 피임법이 있다. 일시적 피임법은 호르몬과 비호르몬으로 나누며 비호르몬성은 질외사정, 낱짜피임, 콘돔, 페미

돔, 살정제, 다이어프램, 자궁경부캡, 자궁내장치 등이며, 호르몬성은 경구피임약, 주사피임제, 피하이식 피임법, 응급피임법 등이다.

이렇듯 피임법이 여러 가지 공존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어느 한 가지도 완벽한 피임법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한다. 즉 각 방법마다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들이 있으며 피임 실패율이 있다는 점이다. 경구피임약은 피임효과가 높으며 월경 주기를 조절, 생리량과 생리통의 감소 등의 이점도 있지만 오심, 두통, 심혈관계 질환, 암과 관계가 있을 수 있다.

자궁내장치는 한번 시술로 장기간 사용하나 월경량 증가와 염증 등 단점도 있다. 콘돔과 주기피임법은 건강에 대한 부작용은 적으나 실천이 어렵고 피임효과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개인의 상태나 상황에 맞는 피임법을 선택하여 실패가 없도록 해야 한다.

### 피임 방법 선택이 중요

최근 외국에서는 새로운 피임법을 개발 호르몬 폐치형, 질내 넣을 수 있는 호르몬 링 등을 선보이고, 정자 감소나 부정자증을 만드는 남성용 피임약을 개발, 임상 연구하여 좋은 경과를 얻었다는 보고도 있어 5년-10년 후엔 남성피임약을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피임하기는 쉬운 것 같으면서도 막상 제대로 하기가 쉽지 않다. 피임방법을 선택하는 데에는 각 피임법의 성공률, 장단점, 사용방법을 잘 알고, 연령, 건강상태, 성교패턴, 피임기간 등에 따라 진료와 상담을 하고 자신에게 맞는 피임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PPFK